

몇 가지 종류의 한국어 형용사에 대하여-----박병수(경희대)

형용사의 의미와 논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형용사를 구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 의미적, 통사적 특징을 살펴본다.

1. 존재 형용사 Existential Adjectives

“(그들은/그들에게(는)) 돈이 있다/없다/많다/적다”와 같이 존재 유무를 의미하고 THEME 논항과 LOCATIVE 논항이 필요하다.

2. 감각 형용사 Sense Adjectives

“(나는/*나에게(는)) 머리가 아프다/가슴이 저리다/이가 시리다/기분이 상쾌하다”와 같이 심리 상태를 의미하고 THEME 논항과 EXPERIENCER 논항이 있어야 한다.

3. 평가 형용사 Evaluative Adjectives

“(나는/*나에게(는)) 자유당이 좋다₁/싫다/지겹다/그럽다/고맙다”와 같이 주관적 태도를 수반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.

4. 서술 형용사 Property Adjectives

“(그 환자는/그 환자에게(는)) 운동이 좋다₂/나쁘다/이롭다/혜롭다/가볍다/과하다”와 같이 사물의 성질을 서술한다. THEME 논항과 BENEFICIARY 논항이 필요하다.

존재 형용사

- (1) a. 나에게 돈이 있다. b. 돈이 나에게 있다.
 c. 나에게는 돈이 있다. d. 돈이 나에게는 있다.
 e. 나는 돈이 있다.
 f. 내가 돈이 있다.
 g. *나의 돈이 있다. (“나의”를 소유주격으로 해석할 때)
 (Cf. 나의 돈이 A은행에 있다.)
 h. J는 돈이 있다.
- (2) a. 한국에 인적자원이 많다. b. 인적자원이 한국에 많다.
 c. 한국에는 인적자원이 많다. d. 인적자원이 한국에는 많다.
 e. 한국은 인적자원이 많다.
 f. 한국이 인적자원이 많다.
 g. *한국의 인적자원이 많다. (“한국의”를 LOCATIVE로 해석할 때)
 (Cf. 한국의 인적자원이 미국에 많다.)

감각 형용사

- (3) a. *나에게 머리가 아프다. b. *머리가 나에게 아프다.
 c. *나에게는 머리가 아프다. d. *머리가 나에게는 아프다.
 e. 나는 머리가 아프다.

- f. 내가 머리가 아프다.
 - g. 나의 머리가 아프다.
 - h. J는 머리가 아프다.
 - i. *J는 머리를 아파한다.
- (4) a. *나에게 기분이 상쾌하다. b. 기분이 나에게 상쾌하다.
 c. *나에게는 기분이 상쾌하다. d. *기분이 나에게는 상쾌하다.
 e. 나는 기분이 상쾌하다.
 f. 내가 기분이 상쾌하다.
 g. 나의 기분이 상쾌하다.
 h. J는 기분이 상쾌하다.
 i. *J는 기분을 상쾌해한다.

평가 형용사

- (5) a. *나에게 산이 좋다. ("나에게"를 경험주로 해석할 때) b. *산이 나에게 좋다
 c. *나에게는 산이 좋다. d. *산이 나에게는 좋다.
 e. 나는 산이 좋다.
 f. 내가 산이 좋다.
 g. *나의 산이 좋다. ("나의"가
 h. *J는 산이 좋다. (J는 산이 좋았다.)
 i. J는 산을 좋아한다.
- (6) a. *나에게 이 개가 무섭다. b. *이 개가 나에게 무섭다.
 c. *나에게는 이 개가 무섭다. d. 이 개가 나에게는 무섭다.
 e. 나는 이 개가 무섭다.
 f. 내가 이 개가 무섭다.
 g. *나의 이 개가 무섭다. ("나의"가 EXPERIENCER로 해석될 때.)
 h. ?*J는 이 개가 무섭다. (Cf. J는 이 개가 무서웠다.)
 i. J는 이 개를 무서워한다.

서술 형용사

- (7) a. 그 환자에게 운동이 나쁘다. b. 운동이 그 환자에게 나쁘다.
 c. 그 환자에게는 운동이 나쁘다. d. 운동이 그 환자에게는 나쁘다.
 e. 그 환자는 운동이 나쁘다.
 f. 그 환자가 운동이 나쁘다.
 g. *그 환자의 운동이 나쁘다. ("그 환자의"가 BENEFICIARY로 해석될 때.)
 h. *그 환자는 운동을 나빠한다.
- (8) a. 우리에게 중요하다. b.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.
 c. 우리에게는 이것이 중요하다. d.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.
 e.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다.
 f.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.
 g. *우리의 이것이 중요하다. ("우리의"가 BENEFICIARY로 해석될 때.)
 h. J는 이것이 중요하다. i. *J는 이것을 중요해한다.

(9) 존재 형용사 '있다'

$$\left[\begin{array}{l} \text{SUBJ} <[1]> \\ \text{COMPS} <[2]> \\ \text{SLASH} < > \\ \text{ART-STR} <[1]\text{NP}_i[\text{NOM}], [2]\text{NP}_j[\text{OBLIQUE}]> \\ \\ \text{SEM-RESTR} \left\{ \begin{array}{l} \left[\text{RELATION } \textit{exist} \right] \\ \text{THEME } i \\ \text{LOCATIVE } j \end{array} \right\} \end{array} \right]$$

(9) 감각 형용사 "아프다"

$$\left[\begin{array}{l} \text{SUBJ} <[1]> \\ \text{COMPS} < > \\ \text{SLASH} <[2]> \\ \text{ARG-STR} <[1]\text{NP}_i[\text{NOM}], [2]\text{NP}_j[\text{OBLIQUE}]> \\ \\ \text{SEM-RESTR} \left\{ \begin{array}{l} \left[\text{RELATION } \textit{painful} \right] \\ \text{THEME } i \\ \text{EXPERIENCER } j \end{array} \right\}, \left[\begin{array}{l} \left[\text{RELATION } \textit{possess} \right] \\ \text{POSSESSOR } j \\ \text{POSSESSED } i \end{array} \right] \end{array} \right]$$

(10) 평가 형용사 "좋다"

$$\left[\begin{array}{l} \text{SUBJ} <[1]> \\ \text{COMPS} < > \\ \text{SLASH} <[2]> \\ \text{ARG-STR} <[1]\text{NP}_i[\text{NOM}], [2]\text{NP}_j[\text{OBLIQUE}]> \\ \\ \text{SEM-RESTR} \left\{ \begin{array}{l} \left[\text{RELATION } \textit{painful} \right] \\ \text{THEME } i \\ \text{EXPERIENCER } j \end{array} \right\} \end{array} \right]$$

(11) 서술 형용사 “나쁘다”

SUBJ <[1]>							
COMPS <[2] >							
SLASH < >							
ART-STR <[1]NP _i [NOM],[2]NP _j [OBLIQUE]>							
SEM-RESTR {	<table style="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-right: 5px;">RELATION</td> <td><i>bad</i>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-right: 5px;">THEME</td> <td><i>i</i>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-right: 5px;">BENEFICIARY</td> <td><i>j</i></td> </tr> </table>	RELATION	<i>bad</i>	THEME	<i>i</i>	BENEFICIARY	<i>j</i>
RELATION	<i>bad</i>						
THEME	<i>i</i>						
BENEFICIARY	<i>j</i>						
}							

감각 형용사와 평가 형용사의 분석에 SLASH 자질을 쓰고 있다. 이는 이런 형용사가 주동사인 문장 (가령, “나는 산이 좋아”) 복문구조로 본다는 것을 뜻한다. 즉 이들 형용사의 경험주 논항은 아래층 구조에는 실현되지 않고 위층에서 주제 또는 초점으로 실현된다고 본다.

대안으로 복문구조로 분석하지 않고 평구조 flat structure로 분석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.

(12)

TOPIC <[2]>							
SUBJ <[1]>							
ARG-STR <[1]NP _i [NOM],[2]NP _j [OBLIQUE]>							
SEM-RESTR {	<table style="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-right: 5px;">RELATION</td> <td><i>painful</i>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-right: 5px;">THEME</td> <td><i>i</i>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-right: 5px;">EXPERIENCER</td> <td><i>j</i></td> </tr> </table>	RELATION	<i>painful</i>	THEME	<i>i</i>	EXPERIENCER	<i>j</i>
RELATION	<i>painful</i>						
THEME	<i>i</i>						
EXPERIENCER	<i>j</i>						
}							

이 대안에 따르면 가령 아래 (13)과 같은 문장에 나오는 형용사를 모두 다른 형용사로 보아야 하는데, 이것은 문제다. 또 이 대안은 경험주가 주제 혹은 초점으로 실현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도 문제다.

- (13) a. 산이 좋아.
 b. 나는 산이 좋아.
 c. 내가 산이 좋아.